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7월 16일(주일) 제1451호



714 기도대성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러브소나타 미야기 참가자 모집

일본 미야기에서 33번째 러브소나타가 울려 퍼진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를 주제로 10월 11일과 12일 미야기 센다이 선플라자에서 막 오른다.

러브소나타 미야기에서는 리바이벌 나이트, 소셜 액션 세미나, 차세대 세미나, 러브소나타 집회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리바이벌 나이트는 한국과 일본이 연합하는 성령집회다. 소셜 액션 세미나에서는 이기훈 목사와 오오토모 마사유키 목사, 차세대 세미나에서는 노희태 목사, 러브소나타 집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사랑채버, 가수 선예, 개그우먼 조혜련, 하다쉬 뮤직, 소프라노 김영미, 소라토리, 크룩스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러브소나타 미야기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로비에서 접수하거나 러브소나타 홈페이지(<https://www.lovesonata.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A팀(121만 원)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B팀(119만 원)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참가한다.

미야기는 일본 혼슈 북동부 태평양에 맞닿아 있는 현이다. 인구 226만 명이 살고, 현청 소재지인 센다이는 ‘숲의 도시’라고 불린다. 아름다운 해안선이 유명한 지역이다. 문의: 02-570-7415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QT하고 빙수 먹자!”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차세대사역본부가 방학 동안 큐티하면서 영적 성장을 돕는 ‘슬기로운 방학생활’을 시작한다. 슬기로운 방학생활 여름편이 ‘QT하고 빙수 먹자’를 주제로 7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4주 동안 이어진다.

차세대 QT(예수님이랑나랑, 예수님이좋아요, 새벽나라) 교재와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활용한다. 참여일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빙수를 간식으로 보내준다. ‘가족큐티모임’을 포함해서 총 24번 참여할 수 있다. 매해 슬기로운 방학생활에는 차세대 2,500여 가정(서빙고, 양재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 02-3215-3523

“온 세계에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라!”

‘714 기도대성회’ 한국 교회 성도 1만여 명 참석
‘2023 카운트다운’ 15~16일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

‘714 기도대성회’는 2024 제4차 로잔대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한국 교회 영적대각성을 도모하는 부르짖음의 장(場)이었다. 한국 교회 성도 1만여 명이 참석했다.

‘714 기도대성회’는 세 파트로 진행됐다. ‘파트1’에서는 주안장로교회팀 찬양,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대표기도,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개회사,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메시지, 이진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 기도선포가 이어졌다. 주승중 목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롬 8:26-27)를 주제로 설교했다. 주 목사는 “하나님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면서 “성령님의 기도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파트2’에서는 더사랑의교회팀 찬양, 임병선 목사(용인제일교회) 대표기도,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메시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기도선포를 했다. 이인호 목사는 ‘연합 기도의 능력’(행 1:13-14)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악의 세력이 약해지고, 교회가 살아날 것”이라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자”고 당부했다.

‘파트3’에서는 온누리교회팀 찬양, 이해영 목사(성민교회) 대표기도, 아신대학교 국제대학원 외국인학생팀 특송, 유기성 목사(WJM이사장) 메시지, 송호철 목사(늘사랑교회) 기도선포, 정찬석 목사(이음교회) 기도선포 등을 했다. 유기성 목사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계 8:3-5)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다. 유 목사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면서 “회개와 기도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 한국 교회의 부흥에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호은경 성도(대전온누리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했고, 조성훈 목사(서울반석교회)는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전 세계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 카운트다운’은 7월 15~16일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The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를 주제로 열린다. 한국 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로잔운동의 의미를 배우고, 제4차 로잔대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온전한 복음 전하기를 선포하는 자리다.

/ 홍하영, 김다애 기자

2023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해외 153개 팀 1,700명, 국내 235개 팀 5,003명 참가

2023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에는 해외 153개 팀 1,700명, 국내 235개 팀 5,003명이 참가한다(7월 13일 기준). 해외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80개 팀 613명, 대학청년부 56개 팀 765명, 차세대 17개 팀 322명이 참여한다. 국내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105개 팀 2,305명, 대학청년부 119개 팀 2,443명, 차세대 11개 팀 255명이 떠난다.

해외 아웃리치는 폴란드, 모로코, 탄자니아, 몰도바, 방글라데시, 레바논, 대만 등 32개국

으로 떠난다. 현지 교회 방문, 선교사 위로, 어린이사역, 시설보수, 전도사역 등을 한다. 국내 아웃리치는 농어촌교회, M센터, 기관 등에서 진행한다. 블레싱, 여름캠프, 어르신 섬김, 마을 잔치, 이주민 섬김 등을 한다.

미디어본부에서는 8월 20일(일)까지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한다.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비공개 지역이나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제작한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

(#온누리아웃리치 2023) 하거나 미디어본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onnuriacts29)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아웃리치의 풍성한 은혜와 간증을 모집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간증(A4용지 1장, 글자 크기 10포인트)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단체사진 보다 역동적인 사역 가로 사진이 좋다. 간증과 사진을 보낸 성도들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준다.

문의: 각 공동체(국내), 02-3215-3211(해외)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성경은 만물의 기원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악의 기원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임을 증거하고, 악의 기원은 인간의 의도적인 반역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창조된 인간과 천사의 반역에 의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악은 선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선한 질서에 대한 반란으로 생긴 게 악입니다. 악은 선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악은 선에 기생합니다. 진짜 악한 사람일수록 선한 사람으로 위장합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려고 먼저 신뢰를 얻으려고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범죄가 가능합니다. 성실함으로 속입니다. 믿음만한 모습, 착한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악한 자신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이 선에서 나왔기에 선을 이용하지 않으면 악으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선한 모습 뒤에도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의 이면에도 악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의도가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사탄의 등장과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인간 안에 있는 악의 모습을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육체가 진화하듯이 도덕적 수준도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인간은 높은 수준의 도덕과 질서 의식에서 추락해서 갈수록 타락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고대보다 현대, 현대보다 미래의 죄가 더 교묘하고 잔인하고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문제를 환경이나 유전적인 문제로 돌리고자 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런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완벽한 환경에서, 모든 것이 주어진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전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출생입니다.

〈창세기〉1~2장에서 인류의 첫 조상들이 누릴 수 있었던 행복과 거룩,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심히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절정에 있는 인간이 저주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더러워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행복이 불행이 됩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

창세기 3:1~13

〈창세기〉3장은 모든 불행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 불행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반역에 영향을 미친 사탄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무 설명 없이 사탄이 등장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창세기〉1~2장에 사탄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언제 생겨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타락한 천사의 무리입니다. 사탄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흉측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그도 선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전직이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신이 행했던 역할을 통해서 선한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28장 12~15절 말씀을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라고 하는데 두로 왕은 에덴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던 타락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사탄의 타락을 계시한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수호천사로 지음을 받았던 천사,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름다움,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천사는 일종의 제사장 역할로서 피조물의 세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교만했을 때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천사의 교만한 의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가 되었고, 인간을 반역의 대열에 참여시킨 사건입니다.

〈이사야〉14장에서도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그 왕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사야〉14장 12~14절 말씀을 보면 다섯 가지 외침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보다 높이 세우겠다”, “북쪽 집회 산 위에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갈 것이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다.”

당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졌던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그 이면에 그들이 교만하고 타락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그들과 한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섯 가지 사탄의 의지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의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사탄이 먼저 생겨났고, 그로 인하여 인간이 반역의 대열에 참

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인,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른 반란이었습니다.

〈창세기〉3장에서는 사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지 뱀으로 나올 뿐입니다. 지금의 뱀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타락 이전에 인간과 자연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뱀은 인간과 친숙한 관계였기에 경계심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이용했을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탄은 늘 변장해서 활동합니다. 자신을 늘 숨깁니다.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탄에 늘 둔감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시대마다 늘 새로운 계락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뱀 뒤에 숨어 거짓을 행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늘 숨어서 거짓으로 공격합니다. 늘 같은 편인 것처럼 위장해서 공격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내가 너에게 악을 행하도록 가르쳐주겠다. 내가 죄를 짓도록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멋진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불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을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세 가지 공격 원리

사탄은 〈창세기〉3장에서 아담과 하위를 공격해 쓰러뜨린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공격 원리가 나타납니다.

첫째, 의심(doubt)입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참으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한 가지 나무열매만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라는 말로 의심을 불어넣을 때 여자가 혼동하게 됩니다. 그 답변을 보면 말씀에 대한 혼동과 왜곡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

“선한 하나님의 창조를 반역한 인간 안에 있는 악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날마다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거나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사탄이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을 때 혼동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결국 말씀을 부인하는 영적 세력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창세기> 3장 4-5절을 보면 사탄이 부인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부인하고 거짓말로 불순종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출발은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심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들을 의심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의심을 지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한편이 되지만, 타락한 자유 의지를 따라서 믿지 않으려고 하면 진화론이 더 옳게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적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지에 따라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향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향하든지 결정합니다. 의지가 타락으로 인해 무너진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에 전염된 것입니다. 악한 의지에 전염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한 의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마 22:37). 여기서 ‘다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성은 믿음의 한 영

역일 뿐입니다. 다 알아야 믿는 것 같지만 믿고자 할 때 알아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의지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줘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타락한 의지가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 의심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불순종의 의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의심부터 출발합니다.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의지적인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꺾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의도적인 불순종의 뿌리가 꺾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아니고는 뿌리 깊은 불순종의 의지가 꺾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욕망 그리고 분열

둘째, 사탄이 최초의 인간을 넘어뜨린 것은 욕망(desire)입니다. 선한 욕구를 악한 욕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유심히 관찰해서 어떤 욕구가 가장 강한지를 관찰하고 그 욕구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 욕구가 채워져야만 자유롭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게 합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6절).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타락은 배고픔의 욕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배부름의 욕구에 기반한 다른 욕구입니다. 교만의 욕구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욕구, 배고픔의 욕구보다 강한 욕구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지혜의 욕구입니다. 그 지혜의 욕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타락한 교만이 됩니다. 교만의 욕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의 욕구가 다른 모든 죄보다 무서운

것은 다른 욕구는 다 인간의 동물적 본성을 통해 일어나지만, 교만은 지옥에서부터 곧장 올라온다.”

교만은 만악의 시작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배고파서 짓는 죄가 있고, 배부르는데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한 죄일까요?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훔쳐 먹은 죄와 먹을 것이 풍족한데 짓는 죄는 다른 차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선한 욕구를 거짓된 욕망으로 바꿉니다. 그 중심에 교만의 욕구가 있습니다.

셋째, 사탄은 분열(division)시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받아들이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자기 분열, 자아 분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타인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라고 친밀감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고 아담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자에게 질문했더니 “뱀이 꺾어서 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타락의 순서를 보면 사탄이 먼저 타락했고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시는 순서를 보면 뱀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담에게 먼저 책임을 묻습니다. 그 다음이 여자입니다. 뱀에게는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저주 하십니다. 회복의 길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은 그냥 지옥에 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회복을 원하시기에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뱀, 여자, 남자 순으로 되었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질문하시고 뱀은 저주하십니다.

인간은 자연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창조되

었지만, 이제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뱀으로 자연과 부조화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반역입니다. 화초를 심으면 화초만 자라지 않고 잡초가 항상 옆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을 심으면 항상 가라지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인간은 늘 자연의 역습과 반역 속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관계의 축복이 분열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는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교육과 문화와 교양으로 감췄을 뿐이지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자기 분열 속에 존재합니다. 자아 분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상 최악의 선택을 통해 죄와 악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의 완전한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의 동산이 저주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들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죄도 있지만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변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짐 받고, 원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고,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고, 우리의 욕망이 선한 뜻에 쓰임을 받고, 모든 분열이 다시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행복의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불행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화나 우화처럼 보입니까? 얼마나 우리 삶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적용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창조를 반역한 인간 안에 있는 악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날마다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714 기도대성회 메시지

“교회여, 다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Part 1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로마서 8:26~27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바르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국 교

회 성도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만 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약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가족 구원과 자녀의 앞길을 위해 눈물

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일이 참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기도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참된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시기 때문에 ‘714 기도대성회’라는 은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제4차 로잔대회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714 기도대성회에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주승중 목사
(주안장로교회)

Part 2

연합기도의 능력

사도행전 1:13-14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연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악의 세력이 약해지고,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합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한 명의 제자들이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 속에서 탄생하고, 기도에서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능력, 생명력, 동력의 근원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둘째,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목표가 다르면 연합의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로잔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로잔운동으로 온 교회가 한 뜻으로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축원합니다.

이인호 목사
(더사랑의교회)

Part 3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요한계시록 8:3~5

제4차 로잔대회의 주제는 “교회여, 다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입니다. 교회가 다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더욱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

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느 순

간부터 기도가 식었고, 영적인 힘이 사라졌습니다. 모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

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유기성 목사
(WJM이사장)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가 위험하다!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에서 결성한 교육과정 연구팀이 2022년 8월 1년여 준비한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온라인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로 이 시안을 이송했다. 국교위는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 교육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상위 위원회다. 국교위는 토의를 거쳐 2022년 12월 14일, ‘교육과정 시안’ 중에서 2015년 이전에 도입된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교과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애초 시안에 있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용어는 유지하되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 해설에서 그 의미를 제시해야 한다(성전환, 조기 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줘야 함)는 수정의결을 했다. 이를 ‘국교위의 의미 수정의결’이라 한다. 교육부는 ‘국교위 의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서 2022년 12월 22일 최종적인 ‘의미 수정 고시’를 확정 공개했다.

복음법률가협회는 이번 교육부의 최종적 의미 수정 고시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용어 하나의 의미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 혁명을 추진하는 진영이 사용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용어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 선택, 성관계 상대 선택, 낙태 선택, 성전환 선택에 포괄적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복음법률가협회는 “성 혁명 이념에서 이 용어가 차지하는 핵심적 지위와 이를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최종 고시에 담긴 정확한 의미는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는 성 혁명적 내용의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국교위와 교육부의 법적 권위를 가진 결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국교위가 ‘의미 수정 고시’를 통해 내린 최종 결정은 4~5개월에 걸쳐 성 혁명 교육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며 강력히 시위해 온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복음법률가협회’ 등 많은 단체와 학부모들, 일반 국민, 기독교 성도들의 타당한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다음세대를 지키는 바른 결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원래 의도한 의미인 ‘강압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 이외의 다른 성 혁명적 의미인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애, 낙태의 권리로 인식되지 않게 유의하며 교육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서 성 혁명 이념을 정당화하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 이전에 들어온 다른 성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이들의 교과서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혁명적 용어들인 ‘다양성 존중’, ‘사회문화적 성’, ‘젠더’, ‘성인지(감수성)’, ‘성 건강권’, ‘생식권’ 같은 용어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 용어들이 성전환, 동성애, 조기 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또 그러한 행위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혹은 위험성 경고 등의 표현을 혐오, 편견, 차별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내용을 배제하는 결단도 함께 담고 있다고 확대해석해야 마땅하다.

2022 새로운 교육과정에 가라지 같이 흠뻑려진 성 혁명적 용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번 ‘의미 수정 고시’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 혁명 이념이 담긴 내용의 교육을 학교가 시행할 때 모든 학부모가 담당교사, 학교장, 교육감에게 교육부와 국교위의 결정을 위반한 책임을 추궁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깨어있는 학부모들의 눈을 부릅뜬 감시와 명확한 의사 표현만이 이를 분별하고 속아넘어 동력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 윤리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쉼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먼저 새긴 다음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한다. 성 윤리 역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노력하지 않거나 알더라도 세상의 기준에 더 동의하기 때문 아닐까?

〈1984〉는 조지 오웰이 1948년 쓴 소설이다. 20세기 초반 유럽대륙을 휩쓸던 마르크스의 이념을 가진 집단이 정권을 잡고 세월이 흘러 1984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는 디스토피아를 상상하며 썼다. 이 소설 등장인물 윈스턴을 통해 전해지는 영국사회당의 구호는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이다. 정치세력들이 이념의 씨앗을 교과서에 뿌리는 것은 다음세대를 자신들의 지지자로 수확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치세력이 뿌리는 이념의 씨앗을 근원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뿌려지는 이념의 양과 질에서 좌우의 균형은 꼭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과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오염되고 파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수정요구를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 교육전문가가 교과서를 집필할 능력을 길러서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이들의 교과서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인권에 대한 성경적 기초



윤상우 집사
(강남D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인권’에 대한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인권은 오랜 역사를 가진 개념이다.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년)에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특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특히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음은 자명하다”고 천명했다.

20세기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나치의 유대인 6백만 명, 1970년대 캄보디아 크메르루주(폴포트)의 2백만 명, 현재 우크라

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일어난 부차 대량학살(제노사이드) 의혹 등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고문하는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가 저질러졌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유엔에서 채택되었고, 점차 국제 인권 관련해서 각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국제법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추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적인 기본적 인권을 확인,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스토티는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인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하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기독교적 관점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창 1:27)는 말씀을 통해 “인권의 기원이 창조주에게서 생명과 함께 그 권리를 받았다”는 토마스 페인의 주장이 옳다고 말한다.

인권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는 세 가지 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 섬기며, 땅의 청지기가 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 둘째, ‘인간 평등’이다. 우리 모두 동일한 창조주에 의해 동일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부자거나 유명하거나 영향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편애하지 않고 대해야 한다. 셋째, ‘인간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셨다. 따라서 그들의 권리를 위한 적극적 행동과 함께 이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성경은 빈곤과 억압에 관심이 있다. 그 이유는 빈곤과 억압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기 때문이다(잠 14:31, 엡 6:9). 성경에 기초한 인권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인간 가족 안에 두시고, 서로 관련을 맺고, 책임을 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둘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 다른 공동체에 모범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한다.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변함없이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세상 속의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추구하고, 절대 침해하지 않으며, 자신의 권리는 종종 포기한다. 그 안에는 편애나 편파성과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인권 학대를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적인 반대 표명을 해야 한다. 특히 보편적인 근본적 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힘없는 어린이, 여성,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분이 되셨다. 군중 속에 묻힌 어린이의 인권을 생각하셨고, 가정사에 치명적인 악절을 지니고 있던 수가성 여인과 만남을 진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이끄셨으며, 세상에서 지탄받는 직업을 가진 삭개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셨다.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의 영적 인권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인권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포기하신 기가 막힌 역설의 주인공이셨다. 거창한 인권 회복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왕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사랑의 역설을 보여줘야 한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가정예배로 풍당!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명령!



신형섭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가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롭게 조명되는 신앙 생활 현장이다. 비대면 사회에서 허락된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신앙 전수가 이뤄져야 한다. 신앙 전수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뤄진다.

성경과 2천 년 교회를 살펴보면,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정언명령이다. <창세기> 13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는 아브람과 롯의 가정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가정예배를 드렸던 아브람 가정과 소유물이 우선이었던 롯의 가정이 대비된다. 롯의 가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람 가정은 가나안 땅으로 갔다.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는 첫걸음에 가정예배가 있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자신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온다. 이 기도는 단순한 축복기도가 아니다. 열두 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강력한 신앙 전수의 자리다. 출애굽 사건의 리더였던 모세의 신앙은 어떻게 자리났을까? 믿음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신앙을 잘 전수했기 때문이다.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가 되어 그의 신앙 성장에 그 누구보다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애굽의 유모는 아기가 다섯 살이 되면 그 역할이 없어졌다. 유모로서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5년 동안 요게벳은 최선을 다해 신앙을 가르쳤을 것이다. 요게벳은 매일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줬을 것이다. 그런 믿음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자라며 애굽 왕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장성해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모세가 애굽 왕실이라는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과 함께 드렸던 ‘가정예배’ 때문이다.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자녀 양육 관련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이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다. 한마디로 자녀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라는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믿음의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 자녀가 성경 말씀과 기도를 배우는 것은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다.

구약과 신약에 나온 가정예배 이야기가 2천 년 교회사로 연결된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목회서신을 통해 “믿음의 가정은 거룩한 의례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룩한 의례가 무엇일까?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정기적인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다. 이 고백 밑에서 신앙이 다음세대로 전수되었다. 로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졌다.

종개 개혁 당시는 어떠한가? 마틴 루터, 장 칼뱅 등 유명한 종교개혁자들도 가정예배를 강조했다. 마틴 루터는 “부모는 가정의 설교자”라고 했고, 장 칼뱅은 “자녀와 가정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 게을리하는 가정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8~19세기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했다면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거룩한 의례를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했다.

1918년 <성경잡지>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되었다. 놀랍게도 이 성경잡지 1권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가정예배로 시작한다.

“가정예배는 기독교의 일종특색(一種特色)

이오, 수신제가(修身齊家)의 요소로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5%도 되지 않았다. 그때도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믿지 않는 가정과 구별되게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배웠다. 불신 가정과 믿음의 가정의 구별법이 가정예배였다. 가정이 일어서고, 자녀가 바로 자라는 수신제가의 요소를 가정예배라고 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던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세웠다.

가정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가정예배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귀한 예배로 받아주신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세상은 이것을 ‘유산’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주고 싶은 진짜 유산은 죽을 때 건네주는 어떤 게 아니다. 오늘부터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자녀와 함께 경험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살아 있는 유산이다. 가정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가정예배 가이드 - 1편 성경과 교회사에서 나타난 가정예배의 원리’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9.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7월 6~13일 본문 <사도행전> 8~10장

1. ‘나’는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1) 나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의 기도와 착한 행동을 기억한다고 인정해주셨습니다.

① 고넬료 ② 베드로 ③ 요셉 ④ 다윗

2) 나는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어요. 성도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나를 둘러쌌어요. 그리고 내가 땅에 쓰러졌는데 하늘에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나는 눈이 멀어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얼마 뒤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손을 얹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했어요. 나는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뒤로 나는 회당을 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어요.

① 이삭 ② 야고보 ③ 사울 ④ 아브라함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QT 간증

“큐티하면 정말 좋아요!”

저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유년1부 2학년 9반 조아인입니다. 저는 저녁에 큐티해요. 저녁에 큐티하면 자기 전에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네 살 때부터 큐티를 했어요. 엄마 아빠랑 함께 큐티 책 <예수님이랑 나랑>으로 시작했어요.

큐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사무엘하> 21장 16~21절이에요. 말씀에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도와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거인이 무척 크고 무서운 것 같은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게 싸운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용감해지고 싶어요. 멋지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토요일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가족 큐티를 하는데 그때마다 감사제목을 나눴어요. 감사제

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엄마 아빠의 감사제 목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큐티를 할 거예요.



조아인 학생
(서빙고 유년1부)

이웃사랑 실천하는 사람들 ‘사회선교본부’

5개 통합팀, 26개 사역팀 ... 돌보고, 관계 맺고, 필요 채워주고

관심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도 참 많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온누리교회에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과 하나 되는 사역팀이 있다. ‘사회선교본부’다. 구제와 공활사역은 물론이고, 성경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는다.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회선교본부’를 소개한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서울역 희망공동체가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왼쪽), 사회선교본부에서 사회선교 사역박람회를 개최했다(오른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온누리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복음 전하고, 예수 증인으로 사는 공동체다. 그곳이 어디든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선교지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모두 선교다. ‘사회선교’도 마찬가지다. 사회선교는 구제와 공활사역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심층적 사역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사회선교를 멈출 수 없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는 5개 통합팀(사회책임, 사회봉사, 사회나눔, 사회통합, 한누리)과 26개 사역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

사회책임통합팀에는 ‘일.하세’, ‘어벤처스’, ‘경제정의’, ‘생명환경’, ‘나그네돌봄사역’팀이 있다. ‘일.하세’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뜻이다. 교회와 가정뿐 아니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사역이다. 일터에서 신앙적 주제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일.하세.아카데미’, 탐색과 실천적 시도하도록 돕는 ‘일터 복음화’, 실직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일터 실천지원’ 사역을 하고 있다.

‘어벤처스’ (A!Ventures!)는 청년 기업가들에게 일하는 목적과 방향, 비전을 제시하고, 일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현재 70개 이상 청년 기업을 멘토링 하고 있다. 매년 1회 행사도 하고 있다.

‘경제정의’는 많은 부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고, 성경적 경제정의 실현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부채탈출 119’ 사역을 진행하는 ‘상담팀’과 경제적 정의와 재정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연구하는 ‘재정 스쿨팀’이 있다.

‘생명환경’은 생명존중과 환경보존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면서 창조질서를 회복하

도록 돕는 사역이다. 그린캠페인(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수거), 유기동물 보호 활동 지원, 사순절 창조질서회복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나그네돌봄사역’에서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통칭 나그네)들을 다양한 형태로 돕는다. 난민과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사회봉사통합팀은 ‘농어촌선교’, ‘이웃사랑’, ‘서울역희망공동체’, ‘남대문희망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선교’는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멈춤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도록 동역하는 사역이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에서는 후원교회와 연합해서 매월 마을 전도와 아웃리치 등을 한다. 양재 농어촌선교팀에서는 성도들의 재능기부(이미용 봉사, 보수공사 등)로 농어촌 교회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웃사랑’은 사회적 약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사역이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용산역 노숙인 쉼터 사역, 홀몸 어르신 방문 봉사 등을 한다. 양재 이웃사랑팀은 한터마을 예배 섬김과 교제, 폐휴지 수집 노인들에게 도시락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서울역희망공동체’는 쪽방촌 거주민과 봉사자의 정서적 교류를 도모한다. 거주민의 자활과 자립이 목표다. 매월 2회 새꿈나눔터에서 봉사자 예배를 드리고, 오찬 교제 및 섬김 대상자를 찾아가 선물을 전달한다.

‘남대문희망공동체’는 쪽방촌 교회공동체를 섬긴다. 지속적인 심방과 나눔으로 예배와 순예배가 세워지도록 도우면서 온전한 회복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다.

사회나눔통합팀은 ‘나눔장터’, ‘오병이어’, ‘엔젤트리’, ‘아트비전’, ‘은빛날개’ 사역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눔장터’는 성도들이 기증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소외계층과 선교사들을 후원한다.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작은 것 하나까지 나누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삶의 의미를 되찾도록 돕는다.

‘오병이어’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오병이어 스쿨, 어르신 맞춤형 일대일제자양육, 어르신 예배 및 순예배 등을 하고 있다.

‘엔젤트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다. 매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재소자, 탈북민, 다문화가정, 공동체에서 섬기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아트비전’은 예술 활동과 작품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이다. 아트비전 회원 정기전 수익금은 선교후원금으로 지원한다.

‘은빛날개’는 시니어들이 은퇴 이후 은사와 열정을 필요한 곳에 제공하도록 훈련하는 사역이다. 은퇴자가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돕는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사회선교본부에는 서로 하나 되게 돕는 사역도 있다. 사회화합통합팀에서 주관하는 ‘다문화사역’, ‘하랑센터’, ‘맘애크’, ‘새사람사역’, ‘제이홈’, ‘선한울타리’가 바로 그것이다. ‘다문화사역’은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 내리도록 돕는다. 다문화 가족 캠프, 이주민교회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랑센터’는 다문화 다음세대(어린이, 청소년, 청년)가 사회, 학교, 가정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서도록 돕는다.

‘맘애크’는 차별과 편견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와 싱글맘들이 건강하게 자녀를 키우고 자립하도록 돕는다. 일대일 멘토링, 지원 사역 등을 통해서 정서적, 관계적,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새사람사역’은 교정기관 수용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신앙으로 교육해서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다. ‘서울구치소 QT 사역팀’, ‘춘천소년원 예배팀’ 등이 활약하고 있다.

‘제이홈’은 입양가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사역이다. 크리스천 입양가정들이 연합해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더 많은 가정이 입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돕고 있다.

‘선한울타리’는 보육원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이다. 보호아동이 열린 가정과 만나도록 주선하는 ‘열린울타리팀’과 위기 청년 숙식 및 교육을 제공하는 ‘푸른울타리’팀이 있다.

한누리통합팀에는 ‘한누리사역팀’과 ‘하나원사역팀’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적응하고, 하나 되어 살도록 돕는다. 한누리사역팀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체계적으로 돕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하나원사역팀은 탈북민들에게 가장 먼저 친구가 되어준다. 하나원 소재 하나교회들과 연합해서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다. 이 외에도 하나공동체(양재), 한터공동체(가양), 한누리공동체(대전), 한사랑공동체(부천), 복사랑공동체(남양주)가 있다.

그 귀한 ‘다락방1사역’

사회선교본부의 많은 사역 중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가장 손쉽게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있다. ‘다락방1사역’이다. 다락방1사역은 한 다락방이 공동체가 속한 지역의 개인이나 기관과 관계 맺고, 이웃들을 섬기는 선교적 사역이다.

다락방1사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공동체가 속한 지역의 특성(탈북민 사역, 이주민 사역 등)을 파악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춰 사역의 방향을 잡는다. 예를 들어, 공동체가 속한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을 탈북민 사역팀에 소개해주거나 보육원 아동들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 셋째, 사역지 또는 대상자와 관계 맺고, 각자 역할을 나눠 사역을 실천한다. 다락방1사역 사역지를 선택할 때는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찾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사역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선교본부에 문의하면 연결을 도와준다. 문의: 02-3215-3434

서빙고 주향한찬양사역팀
베트남 호치민 아웃리치

아웃리치 주인공은 하나님!

서빙고 주향한찬양사역팀이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챔버를 포함한 단원 71명이 지난 2월부터 기도로 준비한 땅 호치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해외 아웃리치를 하나님께서 4년 만에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누가 거기를 갈까?”라며 물으실 때 우리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다.

주향한찬양사역팀이 준비한 사역은 찬양사역과 보육원사역이었다. 보육원사역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의 은사로 그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준비한 합창과 챔버연주, 다양한 체험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성가사님이 보여주신 ‘낮아짐의 연주’는 연주회를 더욱 빛나게 한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아이들에게 만들어준 떡볶이와 전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더운 주방에서 일한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아웃리치 둘째 날 저녁 호치민 시내 니나원 공연장에서 개최한 찬양집회에 400여 명의 베트남 젊은이들이 참석했다. 무엇보다 청중들과 함께 부른 찬양 ‘You raise me up’은 각기 다른 언어로 불렀지만 깊은 유대감을 느끼면서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집회를 마치고 이어진 기도시간에는 주향한찬양사역팀과 베트남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쓰



서빙고 주향한찬양사역팀이 베트남 호치민 원치풍교회에서 찬양집회를 하고 있다.

임을 받기를 간절히 부르짖었다.

다음날 또 다른 찬양집회를 한 원치풍교회는 호치민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교회다. 우리가 한국에서 준비했던 베트남 찬양 ‘Gap Go Chua Gie-xu’ (예수님을 만나다)를 청중들과 함께 부르는 시간에 감동의 눈물이 쏟아졌다. 베트남의 젊은 세대가 준비한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며 오히려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 찬양집회 마지막에 찬양과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결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단 위로 올라와

결신하던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주향한찬양사역팀을 부르신 이유가 시원하게 이해되는 대목이었다.

원치풍교회를 나서며 이번 아웃리치 기획과 제작 및 감독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우리는 그저 각본에 따라 연기한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올려드린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인간의 유한하고 무지한 생각

으로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누가 와도 은혜를 받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복했다.

호치민온누리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은혜의 도가니였다. 이민 교회의 아픔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교민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쌓인 자리라 그랬는지 그곳에서 체험한 성령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셨다. 호치민 온누리교회 이길탁 목사님의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아웃리치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중보자의 기도 덕분에 아웃리치가 온전히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분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언제나 아웃리치 주인공은 하나님 이심을 알고 인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담대히 고백한다. 모든 아웃리치 일정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신 김재석 목사님과 강도사 시험을 며칠 앞두고도 모든 열정을 아웃리치에 쏟아 부어주신 임성호, 함명자 선교사님, 헌신이 무엇인지 꼭 꼭히 보여준 챔버와 음향팀 간사님들께 주향한찬양사역팀을 대신해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이주호 팀장
(주향한찬양사역팀)

고양은평공동체
주기도문교회 아웃리치

연합하는 기쁨!

고양은평공동체가 지난 5월 28일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주기도문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고양 1~3다락방 연합 총 26명이 참여했다.

주기도문교회는 이선태 목사님과 김명숙 사모님이 세우신 교회다. 11년 전 양평 산자락 2만 평을 구매해서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다. 안식 선교사님들이 헛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숙소동도 여러 채 지으셨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코스로 조성해주셨다. 십자가의 길은 유월절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까지 15개 코너를 돌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길이다.

정말 귀한 곳인데 아쉽게도 숙소가 생각만큼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선교사님들이 귀국하면 지방보다 도시 인근에 머무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주기도문교회 건물은 자연 노후된 상태다. 교회가 산속에 있어서 잡초 뽑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주기도문교회 상황을 이광욱 순장님을 통해 듣게 되었다. 다락방에서 일손 돕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홍구 다락방장님(고양2), 구병삼 다락방장님(고양3)과 뜻을 모아 다락방 연합 아웃리치를 계획했다.

아웃리치 첫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두 시간 동안 빗속을 달려 주기도문교회에 도착했다. 교회는 시골 마을을 지나 산속에 있었다.



고양은평공동체가 주기도문교회에 방문해 교회 환경정리와 돌담 쌓기, 식사준비 등을 섬겼다.

아담하게 지어진 예배당과 선교사님들이 사용하는 숙소동 7~8채가 보였다. 목사님 내외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첫 순서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예배당에서 목사님 가정과 함께 주일예배도 드렸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환경정리를 시작했다. 형제들은 3인 1조로 나뉘어 무겁고 긴 철근을 한 곳으로 치우는 작업을 했다. 교회 마당과 십자가의 길에 자란 잡초들을 하나하나 뽑아

내는 작업도 했다. 오후에는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돌담 쌓는 작업을 했다. 형제들이 총동원돼 한마음으로 돌을 나르고, 크기에 맞춰 돌을 쌓고, 땅을 다지는 작업을 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덧 돌담이 가지런하게 완성되었다. 목사님께서 “혼자서는 2~3개월 걸릴 일을 도와주셔서 하루 만에 마치게 되었다”며 기뻐하셨다.

자매들은 2개 조로 나뉘어 일했다. 환경정리팀은 선교사님 숙소동을 돌며 구석구석을 쓸

고, 걸레로 닦았다.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쉬며 묵으실 것을 소망하며 정성을 담아 환경정리를 했다. 식사팀은 준비해온 바비큐로 목사님 부부와 다락방 가족들을 위해 풍성한 식탁을 차려 줬다.

아침부터 비가 온종일 내려서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비 덕분에 덥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아웃리치팀원 모두 유니폼처럼 우비를 입고 작업하면서 웃음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아웃리치를 마칠 수 있었다. 아웃리치 마지막 순서로 목사님 내외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 함께 주기도문교회가 힘이 필요한 안식 선교사님에게 귀한 섬김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했다.

고양은평공동체 1~3다락방 연합 아웃리치에는 연장자 권사님 부부부터 공동체 새가족까지 고루 참여했다.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공동체 식구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권해 주신 순장님들께 감사하다.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사역하면서 다락방과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서기를 기도했다.



정택영 다락방장
(고양은평공동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수 증거하는 삶이 비전!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다르게 자꾸만 삶이 무기력해지고, 비전의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비전의 삶을 갈망한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삶의 여정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방향이 되기에 비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비전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전이 꿈이 되고, 꿈이 비전되는 삶의 갈망이 커지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성경이 말씀하는 비전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삶에 꿈이 없다는 실망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결국, 비전은 결과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다. 삶의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순종을 의미한다. 우리가 비전의 삶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켜 봐야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훈련을 받는다. 때로는 연단과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다. 비전의 삶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비전의 가치를 성공에 두고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없다고 말한다. 성공을 추구하는 비전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잘 알려진 이 말씀

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복음보다 내 삶의 영광과 평안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돌아봐야 한다. 내 삶에 초점을 맞춘 비전은 결국 자기 영광에 집중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선택한 믿음의 무리가 아닌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인생이다.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해 땀을 흘리는 청년들을 만난다. 그들을 전심으로 응원한다. 다시 한번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한다. 비전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신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선교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곧 비전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보다 명확한 비전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던 모든 순간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다.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

인간의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망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다.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 예수를 증거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이우람 목사
(CHPLUS공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서로의 눈 바라보기”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 서로 신뢰가 깊고, 사랑이 깊을수록 온화한 눈으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따뜻함과 사랑이 연결됨을 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만약 무엇인가 숨기는 게 있거나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눈을 바라볼 수 없다. 위축되고 불편해서 떨리는 눈빛을 띠게 된다. 상대와 친밀하게 연결되보다 단절되고 경직됨을 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신뢰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부부는 당연히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못한다. 둘만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극도로 피한다. 굳이 서로에게 새로운 관심을 두지 않고, 대화에 대한 기대도 많이 식었다.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게 불편하고 민망한 행동이 되었다. 하지만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따뜻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연애와 신혼의 시기에만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부부는 평생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해야 한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고 바쁜 삶을 살다 보면 부부는 한없이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부부 중심의 생

활을 하기보다 누군가가 함께하는 구조에 익숙해지기 쉽다. 아이가 생기면 부부는 늘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자연스럽게 부부가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환경에 익숙해지지만,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는 어색해지게 된다.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친밀하고 건강하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부부가 둘만의 시간 보내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둘만의 데이트 시간이 일상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게 너무 어색하고 낯간지럽다.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둘만 남겨져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부는 대화할 때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눈을 통해서 많은 감정과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따뜻하고 인정하는 눈빛과 상대방을 공허히 여기는 눈빛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이 심한 부부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배우자에게 긴장과 심적 분노를 전달하기도 한다. 경멸과 냉소적인 눈빛을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온화한 눈빛으로 둘만의 대화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둘째, 눈을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너무 어색한데요!”, “굳이 눈을 바라보아야 하냐요?”라고 말하는 부부가 있다. 대상과 친

밀한 애착 형성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더욱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과 연결됨을 경험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관계일수록 눈을 바라보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부부에게 갈등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할 때 어떤 부부는 단절을 경험하고, 눈을 바라보지 못해서 회피하게 된다. 어린 시절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이룬 사람이라면 부부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사랑으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불안정 애착 상태로 성장해서 자신과 비슷한 배우자와 산다면 부부 갈등 이후 다시 사랑하고, 바라보고, 대화 나누는 과정이 힘겨울 수 있다. 부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충분한 애착과 사랑을 유지하고 경험해야 하는 특별한 관계다. 눈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홀해진 관계라면 그 관계의 거리를 깨뜨려 서로를 바라보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 생활이 길어졌다 해도 부부는 배우자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 살면서 배우고,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많은 성품이 있다. 성실, 인내, 긍휼 등은 성장 과정에서 배울 수 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성품을 연습해서 습득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교육받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정말 부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성품은 용서와 용납인것 같다. 용서의 가치보다 경쟁하

고 쟁취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는 것 같다. 용서가 빛을 발하는 관계는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다. 나에게 섭섭함을 주고, 더 나아가 상처를 주고, 갈등이 폭발해서 말다툼했던 사이라도 용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이자 가족관계다. 미움을 어떻게 해소할지 모르고, 갈등 이후 어떻게 화복할 줄 모르는 관계에서는 용서를 실천하기가 어렵다. 미움과 갈등이 있는 관계에서 다시 따뜻한 눈길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당연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쌓여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갈등 관계를 녹여내는 성숙과 사랑의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면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 장작불을 피울 때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계속 마른 장작을 넣어줘야 한다. 장작 넣는 것을 멈추면 불꽃도, 온기도 사그라진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계속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부부 사랑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다 (잠 15:30).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맛있는 말씀 해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 10:41~42)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 10:41~42).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각종 구제와 봉사, 여러 사역들로 마음이 분주해질 때가 많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마음이 사역에 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늘 사역자의 일손이 부족하니 아우성이다. 예배보다 사역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빴던 마르다를 나무라시고, 마리아는 칭찬하는 것 같아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서로 비교해서 마리아의 영성을 더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의 배경인 고대사회에서 대개 여성들은 차별받고 있었다. 여성들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배려해주는 본문으로 해석하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에게 책망보다 격려의 말로 들릴 수 있다. 게다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서로가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해주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에 마르다는 음식준비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자신의 주특기인 요리 솜씨로 특별한 음식을 장만하고, 집을 청소하고, 장식하느라 마음의 생각이 분산되어있었다(40절).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었다(헬라이어 ‘페리 에스파토’). 그러나 동생 마리아가 자기 일을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기에 심기가 매우 불편해 있었다. 상상만 해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예수님은 분주한 마르다는 칭찬하지 않고, 마리아의 경청하는

자세를 칭찬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예배 영성이 사역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격려한 이유는 마리아가 많은 일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말씀을 경청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것저것 하려다가 하나도 못 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교회 생활로 늘 바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겨주신다. 행위를 통해 의롭다 여겨주는 분이 아니다. 둘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예배의 영역과 사역의 영역 둘 다 필요한 것은 맞으나, 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사역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역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 중독과 종교 중독에 빠지고, 사역이 교회 생활의 목적이 되고 만다. 이때부터 많은 마르다와 같은 내면의 쓴 뿌리들로 인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좋은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본성은 우상의 공장과 같다”고 경고했다. 예배 영성만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사역의 영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사역의 영성만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예배 영성으로 균형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땅끝’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다

7월 17일~23일
<사도행전> 11:19~13:52



목상포인트 1

: 안디옥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다. 그곳에서 주님은 바나바와 사울(바울)의 동역을 통해 안디옥교회가 부흥하게 하셨다. 그곳 제자들은 ‘그리스도인’(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헌신한 동역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목상하자.

▶스테반의 순교 이후 박해로 흩어졌던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한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와 동역한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 큰 흉년이 찾아오자 안디옥교회 제자들은 바나바와 사울 편에 구제헌금을 보내 예루살렘교회를 돕는다.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바나바의 고향 기르네스로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한다. 마가와 요한은 버가에서 되돌아가고, 바울

가 있기 때문이다. 박해와 순교 앞에 교회는 절망하는 대신 간절히 기도한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교만한 박해자를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 목상하자.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친유대주의 정책을 펴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가둔다. 교회는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처형 전날 밤, 주님의 사자(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낸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 주님의 구원을 간증하고 떠난다. 가이사랴에서 위엄 있는 모습으로 연설하는 헤롯을 보며 사람들이 환호하고 아첨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던 교만한 헤롯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해 간다.

목상포인트 3: 성령이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를 주도하신다. 안디옥교회는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사로 파송된다. 핍박 가운데서도 두 선교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주후 1세기 세계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전도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목상하자.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바나바의 고향 기르네스로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한다. 마가와 요한은 버가에서 되돌아가고, 바울

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바울의 설교에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말씀을 듣고자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해 복음을 반박하자 바울은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했기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거라고 선포한다. 이방인 중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믿는다. 유대인에게 내쫓겨 이고니온으로 가면서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적응을 위한 가이드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와 안디옥교회에서 동역한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함께할 지체는 누구인가? 나와 성품과 기질이 달라도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품자.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일이 무엇인가? 선택한 일에 선택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 ▶교회를 박해하며 교만하게 행하던 헤롯의 비참한 최후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기를 결단하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걸맞은 제자의 삶을 사는가? 믿지 않는 이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도록 노력하자.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 첫 헌신을 기억하자. 내가 ‘나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항상 복음 전도를 위해 힘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할아버지께서는 어느 날부터가 서서히 근육이 강직되고,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겨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이 증상과 함께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곤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오셔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진료를 잘 받고 증상이 호전되기를, 병원에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가족들도 사랑으로 간호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몇 번이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강하게 복음을 거부하십니다. 매일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밤에 평안히 주무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할아버지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 행복반 수료 간증



/ 홍유석 성도

뒤늦게 알게 된 ‘진정한 행복’

우리는 세상이 던지는 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경향이 있다.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행복을 꾀 맞추며 사는 것 같다. 사실 나도 억지이자 가식적인 행복을 갖고 살아왔다. 행복반 참가를 권유받았을 때 ‘나는 행복한데 왜 행복반?’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52기 행복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12주 과정 동안 행복반은 나에게 큰 충격(shock)을 선사했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왜곡되어 있었다.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로는 고백하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무서운 하나님, 엄격하신 하나님, 내게 실망하고 계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즉각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다. 하지만 행복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나눔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잘못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게 온유하셨고, 한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과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다.

행복반의 하이라이트는 ‘행복큐티’(QT)였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다. 가정, 직장, 관계, 물질관 등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 한두 가지를 정하고 순종하며 실천했다. 놀랍게도 이 큐티 방법이 내 삶을 아주 크게 변화시켰다. <마가복음> 10장 8~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부부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부터 아내에게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아내는 내가 크게 변했다고 인정한다. 물론 지금도 종종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한다. 어느 날 또다시 가족들에게 역정을 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내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다. 정말 어려웠지만, 아내에게 “역정내서 미안해”라고 사과할 수 있었다.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다.

하나님은 행복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늦게나마 행복한 삶을 안겨주셨다. 행복큐티를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성품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보다 큰 행복이 또 있을까?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 세례 간증



/ 박철 성도(양천공동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십여 년 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목 뒤편이 아프기 시작했다. 어렵게 여행을 마치고 검진을 받았더니 척수가 새는 뇌 질환이었다. 감사하게도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지금은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내가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 나를 살려만 주시면 꼭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고 약속했단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큰 고비를 넘기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께 돌리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그러다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나와 아내는 다시 한번 절실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지인의 추천으로 회복사역을 많이 한다는 온누리교회를 찾았다. 그렇게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언젠가 백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수백 년 유교의 굴레와

철저한 신분제, 여성의 지위가 천시받던 이 땅에 복음과 의료, 교육, 여성 인권을 위해 희생한 그분들의 역사를 봤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지금 대한민국의 씨앗이 되었다. 더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셨다. 인지하지 못했었지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던 나를 부르시는 방향을 잡고 계셨다.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죄 많은 나를 기다려 주셨다. 아직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게 어렵고, 큐티도 잘못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나와 가족을 기다려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다. 믿음의 시작점에서 온누리교회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 유아세례 간증



/ 이지혜 성도 (신용산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두 번의 유산 끝에 첫 아이를 갖게 되었다.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 그렇지 않았다. 내가 누군가를 바르게 길러낼 능력이 있는지, 경제력은 충분한지에 대한 생각에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을 느끼기보다 혼자였을 때가 편하고 좋았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미성숙한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양육하던 그때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에도 없던 둘째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 시편 127편 4절~5절 말씀을 마음에 주셨지만 ‘하나도 제대로 키우고 있지 못하는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 하는 찝찝함이 있었다. 그 말씀들이 잊힐 때쯤 한 달 동안 주일 설교 시간에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게 하셨다. 큐티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까지 또렷하게 하나님 뜻임을 깨달았던 적이 없었기에 어렵게 마음 먹고 둘째를 갖게 되었다.

나의 미성숙한 모습은 그대로인 채 두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 시기에 나의 상황을 아시는 간사님의 추천으로 교육을 들었다. 교육 내용 중에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전부 흘러 들어가면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는 문장이 있었다. 내가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나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간다.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1순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여야 한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세상적인 가치들을 우위에 두고 살았다. 그래서 아이들 양육이 걸림돌로 여겨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더 큰 행복이 된다.

사실 교육 받고 있을 당시 이미 셋째가 뱃속에 있었다. 지난해 5월 어느 주일날 이기복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낳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내 이든이가 태어났다. 평생 순종 한 번 안 하던 나를 순종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기를 소망한다. 이레, 이엘, 이든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청춘클래스 수료 간증



/ 신현지 자매(J4U청년부)

그때가 성큼 다가올 것이다

청춘클래스 4기에 정말 참여하고 싶었다. 청춘클래스 1기 광고를 봤을 때 크리스천의 구별된 연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만 있었는데, 4기 광고를 봤을 때는 이전과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찾고 싶었다. 호기롭게 청춘클래스 4기에 지원했다.

감사하게도 청춘클래스 4기에서 서포터즈와 참여자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기회를 얻었다. 서포터즈로 참여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청년들의 만남을 위해 얼마나 크고 뜨거운 중보기도를 하시는지, 청춘클래스 스태프들이 테이블 곳곳이부터 다과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 수많은 테스트와 회의를 거쳐 프로그램이 얼마나 세심하게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그 값지고 감사한 시간을 알기에 성도들의 정성과 기도가 쌓인 청춘클래스에서 연연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며 매 순간 진심으로 참여했다.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4월 말, 머리도 꾸미

고, 옷을 준비하면서 설렘을 가득 안은 채 청춘클래스 4기에 참여했다. 첫 주 모임에서 기분 좋지만 혼란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괜찮은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를 더 알아가야 할지 헷갈렸다. 최종 선택하는 날까지 결혼에 대한 신앙 서적을 읽고,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고, 결혼과 연애, 배우자에 대한 기도와 묵상을 했다. 결론적으로 청춘클래스를 통해 교제하는 형제는 없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결혼을 왜 축복하시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그 기준을 배웠다.

청춘클래스에서 만난 모든 지체를 축복한다. 삶 속에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 당장 연연의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싱글의 때에 만나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로 살다 보면 결혼이라는 언약이 이뤄지는 때가 성큼 다가올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청춘클래스를 통해서 더 많은 연인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믿음의 가정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권사칼럼

일본, 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다

예수님의 사고몽치



김창호 목사
(강남D공동체, CGN
사목, 러브소나타)

2005년 이스라엘 평화대행진이 나의 첫 해외 아웃리치였다. 새벽녘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 떠오르는 태양을 등에 지고 잔잔히 울려 퍼지는 김영미 권사님의 찬양과 하용조 목사님의 강렬한 설교, 호수 안에서 배 풀어진 세례 장면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한 감동으로 남아 있다.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분리 장벽을 따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평화 행진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화해와 일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일이 내가 선교에 눈을 뜨게 된 귀중한 사건이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며 매번 떠올렸던 이스라엘에서 직접 체험한 삼엄한 분위기, 분쟁의 현실이 내 안에 깊은 아픔으로 다가왔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을 향한 기도가 계속되었다. 이 기도는 20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맞아 시작한 40일 특별새벽기도회로 이어졌다.

나는 거대한 성령의 파도와 기도의 물결을 타고 2007년 일본에 오게 되었다. 나는 일본선교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일본으로 보내셔서 동경과 오사카에서 일본 CGNTV 개국에 동참하게 하셨다. 일본 CGNTV 개국 예배 주제였던 ‘러브소나타’가 한류와 함께 ‘문화전도 집회’라는 형태로 오키나와에서 삿포로까지 순식간에 확산됐다. 그 덕분에 일본 CGNTV와 러브소나타 사역으로 수년을 숨 고를 여유조차 없이 보냈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있는 각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CGN의 미디어선교 설명회를 하고, 그곳에서 목회자들의 10분 메시지를 촬영했다. 교단과 교파가 다

른 목회자들이지만 동일한 복음적 설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 되어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각 지역에서도 러브소나타를 개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하면서 일본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던 서른세 번에 걸친 전도행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7월, 동경대회 때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일본인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그들의 가슴 깊은 곳을 진하게 울렸다. 쓰나미가 동북부지역을 뒤덮었던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도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변함없는 헌신이 일본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무지한 나에게 현지 교회를 하나하나 보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들과 동역하는 선교를 가르쳐 주셨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선불리 일본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기보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선교가 이뤄진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게 여기셨다. ‘무엇보다 기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다.

일본에서의 지난 15년 10개월 동안 기도만큼 강력한 선교 무기가 없었다. 특히 새벽기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8백만 신의 나라 일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비전의 자리가 되었다. 일본은 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

지금까지 기적과 같은 역사를 써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전폭적인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일본선교를 향한 온누리교회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이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을 믿는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존재 이유가 희미해지는 것 같다. 다들 교회가 위기라고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교회의 위기를 가져온 것일까? 교회의 크고 작은 규모가 문제일까? 아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신다.

요즘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사회의 눈총을 받는다. 눈총도 총이라 자주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일까? 눈총을 피해 숨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이 크리스천’이 많아졌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사고를 쳐야 한다. 생각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푹푹 묵치는 ‘예수님의 사고(思考)몽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묵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고(事故)몽치로 각인될 수밖에 없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 예수님의 기준으로 새판을 짜야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지금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 가족, 친척, 친구, 지인, 가난한 성도 등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인간관계의 고통 등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각종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끝나지 않는 전염병, 전쟁 소식,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갈이니 나와 함께 가면 된다, 내가 진리니 내 안에 있으면 된다,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 예수를 혼란한 세상에 전해야 한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묵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중략) 너희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추수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가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의 마지막 구절이다. 지금 절망의 늪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수천 개의 담쟁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故 이병현 선교사를 추모하며



채현석 선교사
(2000선교본부
선교역사자료실)

지난 5월 28일 온누리교회 원로 선교사 이병현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다. 이병현 선교사님은 1927년생으로 96세를 사셨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한 세기(100년) 가까이 사셨다.

이병현 선교사님은 부모님이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이주해서 중국 텐진(天津)에서 태어나셨다. 1945년 해방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 군 생활을 마치고 중국어와 영어 실력을 활용해서 동남아 및 서남아시아(중동) 지역에서 무역업으로 큰돈을 벌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힘이 필요해서 1979년 영국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1980년대 초 마침 영국에 오신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 큰 감화를 받았다. 1983년 귀국했고, 1985년 창립한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주로 해외선교에 헌신해서 활동하다가 1995년 68세에 중국 선교사로 떠나셨다. 2011년 84세에 은퇴하고 귀국해서 Acts29 비전빌리지 선교사 숙소에서 12년 동안 생활하시다가 소천하셨다.

이병현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는 <온누리신문> 2016년 1월 31일자, 2021년 8월 29일자 등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이병현 선교사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기에 그분의 간증과 선교사역의 내용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 2000선교본부 선교역사자료실에 서도 ‘권역별 선교역사자료집 중국편’에 이병현 선교사님의 관련 자료를 모아 실었다. 이병현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고 부인 선교사님(김현기 권사)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 및

정리하고 있다.

나는 2000선교본부 선교역사자료실을 섬기고 있어서 여러 차례 이병현 선교사님을 뵈고 이야기를 들으며 자료를 정리했다. Acts29 비전빌리지에 방문할 때마다 이병현 선교사님 내외가 1층 커피숍에 나와 앉아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가 인사드리면 잠시 앉게 하시고는 자신의 선교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들려주시곤 하셨다. 몸이 불편해서 못 나와 계실 때는 선교사님 숙소에서 들려 말씀을 들으며 필요한 내용을 메모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3년 동안은 조심스러워 못 뵈고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됐을 때는 선교사님의 몸이 쇠약해 지셔서 출입이 어려웠다. 1년 전쯤 한 번 뵈고 그 뒤로는 못 뵈었는데 결국 소천하셨다.

이병현 선교사님을 뵈 때마다 ‘90대에 참으로 건강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도 뚜렷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거침이 없으셨

그 아름다운 발걸음

다. 눈에서 선교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과 진심이 담긴 형형한 빛이 발산되는 느낌이었다. 뵈 때마다 선교사님이 섬기셨던 선교지에 대한 새로 들은 소식,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 나름대로 구상한 선교 방법 등을 나누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병현 선교사님은 50대에 예수님을 만나셨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셨다. 68세에 선교 현장에 나가서 84세까지 섬기셨다. 96세 소천하실 때까지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불드신 이병현 선교사님의 삶이 많은 깨달음을 준다.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다. 이병현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우리 모두의 기억과 기록에 남고 새겨져서 하나님의 선교에 기여하기를 기도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일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일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일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일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일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일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일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 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 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 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일기도회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

교관 202호, 매일 첫 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매 첫 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

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

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

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애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

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방 11:00 705호 / 러시아

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영어)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

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차세대 주일 14:00 309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일어머니기도회

일시: 매 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 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선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 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6-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 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

능)

연습: 매 주 토 1~4시(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영상·유튜브팀 간사 채용 공고

모집 : 영상(촬영, 편집) 0명 / 신입

자격: 세례교인, Premiere Pro, After Effe

ct, Final Cut Pro 등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가능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성품이

온유한 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우대 :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온누리교

회 대학생년부

문의: 서빙고 영상·유튜브팀(02-3215-

3752, 3787)

두란노 아버지학교 본부 169기 모집

일시: 7월 29일~8월 26일 매 주 토 오후 2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신청: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father.

orkr)나 아이스쿨 홈페이지

회비: 12만 원

문의: 010-2657-1875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 재 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일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일저녁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일심야예배

매 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 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 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형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 주 금요일 오전 10시 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아주민, 난민 의료

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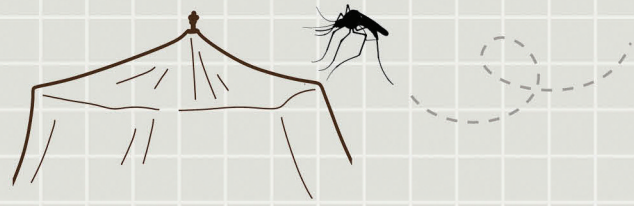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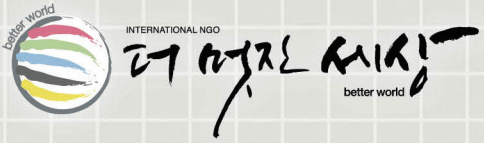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 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광고·세례 ■ 광고 일대일 양육자반 서빙고 이비오 목사반 일시: 8월 24일~12월 14일 매주 목 20:30~22:30 신청: 8월 16일까지 문의: 010-4731-6514 ■ 세례 허브대학부 -입교 권혁찬 970609 유제희 970415 채민혁 010906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한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재정 모바일현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현금 특징 - 이제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현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소천 7/7(금) 영등포구로 김찬영 집사 부친상 고 김종률 7/8(토) 강남C 김언지 성도 모친상 고 안영혜 7/9(주일) 강촌 김은수 성도 모친상, 김진일 성도 빙모상 고전경자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알: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왕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7/10(월) 분당A 여한구 성도 부친상 고 여운모 7/10(월) 서초C 송순동 선교사 모친상 고 김귀여 7/10(월) 가정사역 김학민 성도 부친상 고 김종식 7/10(월) 강촌 이상원 집사 모친상 고 이문자 7/11(화) 서초C 임선옥 집사 부군상 고 전영종 7/11(화) 서대문 편흥열 집사 모친상 고 채수자 7/11(화) S브릿지 김경희 성도 모친상 고 신재수 7/11(화) 동대문중앙 이태종 집사 부친상, 이미국 권사 시부상 고 이상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알: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왕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7/13(목) 마포 정은희 집사 모친상 고 남궁영 7/14(금) 강서 민경애 권사 부친상 고 민부기



NGO 더멋진세상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

생명을 지키는 모기장으로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계3대 감염질환 말라리아, 감염자의 95%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합니다.
우간다의 남수단 난민정착촌은 나일강 습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모기서식지가 많아 말라리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모기장 하나만으로도 말라리아 감염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간다 난민정착촌의 난민 가족



모기장 후원으로 남수단 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지원 대상 우간다 팔로리냐 정착촌에 거주하는 남수단 난민

지원 내용 모기장 **3,000장**(가구당 2~3장 배포/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모기장 배포와 보건 및 위생환경 개선에 쓰여집니다.



홈페이지 betterworld.or.kr
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9905
(사)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6 (내선 0번)

더멋진세상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국제개발 NGO입니다.